

독서진흥정책으로서 서울국제도서전의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as one of the National Reading Improvement Policies

김 상 호(Sang-Ho Kim)**

목 차

1. 서 언	3.3 성과의 분석
2. 독서진흥정책의 주체	4. 독서진흥을 위한 서울국제도서전의 문제
3. 주요 국제도서전의 내용 및 성과	4.1 출판의 관점
3.1 국제도서전의 성격	4.2 독서의 관점
3.2 공간 및 프로그램의 구성	5. 결 언

초 록

본 연구는 독서진흥과 관련한 서울국제도서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독서진흥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과 문화정책, 주요 국제도서전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국제도서전은 국가간 저작권의 교역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은 출판이 아닌 도서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정책당국이나 서울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는 독서진흥과 국제도서전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일을 추진해왔다. 이는 독서와 출판 산업의 어느 부분에서도 이롭지 않다.

ABSTRACT

International book fairs are business enterprise to promote and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of copyright. National reading improvement policies, on the other hand, are supposed to be made to maximize the role of national and regional libraries, not just to boost publication industry. However, Korean government authorities of the reading improvement policies and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have mapped out and, in effect, carried out their plans as if reading improvement policies are closely related to hosting international book fairs. It is important to realize that hosting book fair has pecuniary motives while making policies for reading improvement must be geared toward the betterment of the general public by reading.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the Seoul International Book Fair that are regarded as to relate to reading improvement.

키워드: 독서정책, 국제도서전

Reading Improvement Policy, International Book Fair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anghkim@daegu.ac.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6월 18일

1. 서 언

오늘날 국제도서전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연례적으로 거의 매주 열리고 있다. 그 중 우리의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리는 시기는 6월 첫째 금요일이다. 모처럼 출판 동향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을 찾는다. 젊은 주부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책을 뒤적이는 모습에서 국제도서전의 성과 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도 밝아 보인다.

국제도서전은 여러 나라의 출판관계자가 모여 출판물에 관한 권리를 사고파는 교역의 장이다. 새로운 도서를 전시하고 저작권 계약을 하는 것이 그 주된 행위이며 목적이다.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한 목적의 도서전시회와는 그 성격이 분명 다르다(Graham 1969, 682). 그런데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최 측이 작성한 2005년의 성과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제도서전의 여섯 가지 목적 가운데 '국민 독서력의 증대를 통한 국가 지식기반의 확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도서전의 다섯 가지 추진방향은 해외 출판사에 관한 하나의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국내 독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06, 1).

국제도서전이 사회의 독서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것은 국제도서전이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개최되는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동도서 부문의 국제도서전으로 그 위상이 확고한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Bologna Children's Book Fair 2007). 아동도서전에서 독자인 아동을 배제하는 것은 국제도서전의 목적이 독서진흥에

있지 않고, 독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적이고 상업적이며 기본에 충실하므로 독자에 대한 홍보의 기회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 세계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큰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은 일반인이 참관하기 위해서 현지 영화관 입장료 두 배 정도의 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한 현상을 국제도서전의 전통과 권위, 위상의 차이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이제 새로운 독서문화진흥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문화정책당국의 잘못된 인식, 정책상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독서진흥정책으로서 서울국제도서전의 문제점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독서진흥정책의 주체 문제를 논의하고, 동경국제도서전, 북엑스포아메리카,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등 주요 국제도서전의 성격과 공간 및 프로그램의 구성, 성과를 주최 측이 공개한 2005년, 2006년, 2007년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며, 서울국제도서전의 실상과 득실을 출판과 독서의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로 논문의 제출 이후 개최될 예정인 2007년 서울국제도서전의 내용은 본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밝혀둔다.

2. 독서진흥정책의 주체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0호로 공포된 독서문화진흥법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률의 목적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둘째,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셋째,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할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그러한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된 실질적인 이유와 동기는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9호로 개정법명을 도서관법이라 정한 데 있으며, 결국 과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독서진흥에 관한 조문이 일부 보완되어 별도의 법률로 성립하게 된 것이다.

새로워진 독서문화진흥법의 핵심은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2007년 2월에 문화관광부 문화미디어국 출판산업팀이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안)을 마련했고, 2007년 4월 5일 대통령령 제 19997호로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었다. 시행령에서 독서진흥위원회는 교육 출판 도서관 언론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그리고 독서 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정책 담당부서에서 기초한 것이지만 그 구성은 대체로 적절하다. 다만 정서와 관념보다 사리와 합리성에 근거해 국민의 독서활동을 보장하는 도서관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다.

우리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은 국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 함양, 평생교육의 바탕 마련이라는 거창한 구호로 시작하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문맹퇴치라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다. 그런 경우에 보다 복잡하고 확대된 형태의 독서진흥활동은 당연히 그들 나라에서 발달한 도서관의 몫이다(이종국 외 2002, 35, 91, 184).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체계 하에서 우리나라 독서진흥정책의 주관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를 기술한 동법 제16조 8항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민독서진흥 활동'을 기술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2005 문화정책백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편집의 『2005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통해서 그 사실이 확인된다.

이제 새로운 도서관법 체계 하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그러한 책무는 삭제되고 없다. 대신 독서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심의기관인 독서진흥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해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임의로 확장해 조직 내에 독서진흥팀, 독서아카데미운영반을 두고 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볼 일이다.

비록 국립중앙도서관이 독서진흥정책을 수립하는 책무를 벗긴 했지만, 새로운 독서문화진흥법 하에서 도서관은 여전히 독서진흥의 중심에 있다. 문제는 그 권한이 명시되었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체계 하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계가 독서진흥에 관한 자신의 책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과연 독서문화진흥법 체계 하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005년에 작성한 위의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독서환경 개선이나 독서진흥 관련 사업 및 행사 대부분이 도서관계가 아니라 출판계 주도의 사업들로 채워져 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아닌 출

관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해 수행되는 활동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잘못된 인식과 능력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낸 일이었다 하겠다.

역시 2005년에 국립중앙도서관이 미래 청사진으로 밝힌 『국립중앙도서관 2010』에서 '범국민 독서진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보면 첫째, 범국민독서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둘째, 독서진흥법 제정추진 지원, 셋째, 독서진흥활동 홍보강화 등이다. 그 마지막 실행전략을 위한 사업에 독서진흥연차보고의 적극 홍보, 국민독서실태조사의 정례 실시, 독서홍보대사 구성 운영, 독서문화상 시상 확대, 서울국제도서전 정례적 참여를 통한 도서관 출판 독자와의 만남 유도, 다양한 독서진흥 포스터 발행 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 추진, 독서의 달 활성화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도서관 중심의 사고는 실종된 상태이다. 독서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었는지 의심이다.

새로운 독서문화진흥법은 표면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독서진흥의 책무를 벗어던질 수 있게 했다. 도서관이 자신의 책무를 인식하지 못하면 독서정책은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출판이 출판물을 생산하는 행위라면, 독서는 출판물을 소비하는 행위이다. 도서관은 출판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독서진흥을 위한 기구라는 말이다. 소비를 장려하는 일에 생산의 주체가 나서서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출판계가 독서진흥의 주체가 되고, 출판정책당국이 독서진흥정책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독서진흥의 지름길은 도서관이 양서 보급의 창구로서 제 기능을 다 하는 데 있다. 출판계는 독서진흥을 위한 관점에서 양서 출판

에 전념해야 한다.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그 위치에서 순기능을 하도록 문화정책당국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국제도서전의 내용 및 성과

3.1 국제도서전의 성격

국제도서전은 국가 간 출판물의 교역을 촉진하는 활동이다. 그 공급자는 물론 수요자 역시 출판인이다. 20세기 중반에 열린 유럽의 주요 국제도서전은 출판사 대 판매업자, 소비자라는 도서관매의 틀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타 언어권의 출판사 간 저작권 협상 및 판매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아시아와 중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국제도서전을 개최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2006년을 기준으로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이 57회, 베오그라드국제도서전과 바르샤바국제도서전이 50회, 블로나이동도서전이 42회, 북엑스포아메리카가 58회, 뉴델리국제도서전이 17회, 동경국제도서전과 북경국제도서전이 13회, 산티아고국제도서전이 24회, 보고타국제도서전이 18회째를 기록했다. 1954년에 시작한 서울도서전은 1995년에 국제도서전으로 탈바꿈하여 2007년 6월에 제46회 서울국제도서전을 갖게 되었다.

국제도서전은 그것을 개최한 나라의 문화 발전, 또는 정치 경제 상의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출판 유통관련 협회가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 행사를 주관하고, 전시장의 임대료와 입장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

이다. 예를 들어 동경국제도서전은 일본서적출판협회, 일본잡지협회, 일본서적상업조합연합회 등 아홉 개의 단체로 구성된 동경국제도서전 실행위원회와 리드전시사(Reed Exhibitions) 일본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형태이고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 2007), 북엑스포아메리카는 미국출판협회와 미국서적상협회 등이 후원하고 리드전시사가 주최하는 형태이며 (BookExpo America 2007),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은 출판협회 산하기구인 AuM이 주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Frankfurter Buchmesse 2007).

동경국제도서전 실행위원회가 2006년에 국내의 출판사를 유치하기 위해 내건 구호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국외 출판사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일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출판시장이고, 매년 5,400종의 번역서를 발행하는 저작권의 최대 수입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권리를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출판사들이 동경국제도서전에 참가하기를 기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자국의 출판사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1천 3백여 명의 교역당사자들이 방문한 지난 실적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권리를 판매하기 위해 많은 출판사들이 자국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에 참가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국제도서전의 목적이 저작권 상담과 계약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3.2 공간 및 프로그램의 구성

3.2.1 전시 공간

국제도서전의 전시 공간은 일반적으로 출판

물의 유형이나 주제에 따라 구분된다. 전시 공간의 구성을 통해 특정 국제도서전의 특성, 범위, 한계,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2007년의 동경국제도서전 전시 공간은 여섯 주제의 전문화된 전시관과 세 개의 특별 전시 코너로 계획되어 있다. 전문화된 전시관의 주제는 인문사회과학도서, 자연과학도서, 아동도서, 교육도서 및 소프트웨어, 편집제작, 디지털 출판 등이고, 특별 전시코너로는 예술도서, 언어교육, 서점관리시스템 등이 자리한다. 이는 동경국제도서전이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언어 및 교육, 아동도서를 중심으로 전시되지만, 출판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출판 및 유통 분야의 최신 기술 또한 주요 전시요소이며, 결국 출판관계자 중심으로 국제도서전이 기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 독자 중심이라면 그들이 관심을 가질 부수적인 주제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하다.

2006년의 북엑스포아메리카는 일반 전시 공간을 출판물의 유형, 주제에 따라 일반도서, 아동 및 교육도서, 여행 및 지도, 예술도서, 종교도서, 정신 및 영감관련도서, 전문기술과학도서, 재고도서, 외국도서, 군소출판사도서, 대학출판물, 비도서, 오디오 및 비디오, 선물 및 주변상품 등 열네 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스페인도서, 흑인도서 등 특별한 흥미에 관한 공간은 따로 여덟 개를 더 마련하였다. 동경국제도서전에 비해 도서류의 비중이 높고, 그 구분을 독자의 관심에 맞게 세분하였으며, 소형 출판사의 참가를 수월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7천여 개 사가 참여한 2006년의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은 6개 동의 건물, 총 13개 층에 달하는 전시 공간에서 열렸다. 전체적으로 소

설 및 비소설류, 아동도서, 코믹, 종교 및 정신, 여행, 과학전문도서, 예술도서, 고서, 외국출판사 등 출판물의 유형 및 주제에 따라 전시 공간을 구분하고, 커뮤니케이션매체, 저작권관련 기업, 인력스카우트센터와 같은 출판 관련 산업 및 인접 분야에 대해서도 넓은 공간을 할애해서 비중 있게 다루었다. 개별 출판사가 점유하는 공간은 신간도서를 전시하는 서가공간보다 저작권 상담을 위한 회의공간이 대부분 더 넓은 게 특징이었다. 출판인의 회합 장소로 저작권 상담 및 계약의 장소로 출판관련 산업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장소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만하다.

3.2.2 행사 프로그램

국제도서전의 전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프로그램은 새로 출간한 도서의 전시와 저작권의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국제도서전의 주최측, 또는 전시에 참가한 업체가 마련한 행사 프로그램은 해당 국제도서전의 성격과 특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2006년 동경국제도서전에서 진행된 주요 행사는 국내의 저작권담당자와 편집자를 위한 정보교환파티, 전문세미나, 참가 업체의 공개세미나, 작가와 저명인사의 사인회 및 토크쇼, 도서장정 경연 전시회, 양서 엽가판매 등이었다. 최신정보주지를 위한 전문가 모임, 그리고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홍보성 이벤트라는 두 가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다.

2007년 북엑스포아메리카의 행사로는 출판산업 및 저작권분야의 전문가, 서적상, 교육자, 사서를 위한 여러 국제회의와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스페셜이벤트, 저자사인회 등이 계획되

었다. 별개의 행사로 작가회의를 준비하였는데, 이로써 본다면 주최 측은 국제도서전을 출판인 뿐만 아니라 출판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계와 도서관계의 인사, 그리고 작가들이 함께하는 장이 되도록 각별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 열린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의 경우에는 모두 2,579회의 행사가 개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유형별로는 저자와의 대화가 571회로 가장 많고, 낭독회가 529회, 프리젠테이션이 407회, 인터뷰가 302회, 토론회가 194회, 회합이 152회, 강연이 136회였으며, 세미나 및 연수회, 리셉션, 시상식, 기념식, 회의 등이 각각 수십여 차례를 기록했다.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도서전의 효과를 증진하려는 주최 측의 의도가 컸겠지만, 참가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이루기 어려운 성과이다.

2006년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의 여러 행사 가운데 출판인 간의 보다 진지한 논의와 최신정보주지를 위해 개최된 세미나, 연수회, 포럼 형태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수회는 'Bestsellers for Everybody', 'What is it that makes material good', 'Filming Literature', 'Conflict Resolution during Film Projects' 등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양서제작 및 필름을 주제로 열렸으며, 포럼은 'Audiobooks', 'Children's books', 'Dialogue', 'General Enquiries & Spiegel Education', 'Fiction & Non-Fiction', 'Academic & Scientific books', 'Science', 'Film & TV', 'Innovation', 'Production in Publishing' 등 유형별 도서 및 출판기술에 관한 것이었고, 프랑

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으로 처음 도서전에 참가하는 업체와 개인을 위해 마련된 유료 세미나는 'Preparation of Paperwork', 'Advertising and PR', 'Working Facilities and Services', 'Making Contacts with Potential Customers', 'Negotiations for Rights and Licences', 'International Networking' 등 국제도서전에서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실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사항들로 구성되었다. 나머지 행사들은 의례적이거나 일반인의 흥미를 목적으로 마련한 이벤트들이었다.

3.3 성과의 분석

해마다 국제도서전이 끝나면 주최 측은 그들이 거둔 성과를 조사 분석하여 다음 해의 행사에 대비한다. 자체 평가한 그들의 분석표에서 해당 국제도서전이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개최되었는지 드러난다.

2006년에 열린 동경국제도서전은 모두 28개국에서 726개 사가 참가하고 국내외에서 54,370명의 등록 인원이 참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등록 인원의 분포는 출판 및 유통 분야의 경우에 출판사, 인쇄 및 제책사, 저작자, 편집제작자, 저작권기구의 관계자가 13,651명으로 전체의 1/4정도이고, 서점 및 도매 기구의 유통 관계자가 5,678명으로 전체의 1/1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며, 외국의 출판관계자는 1,348명으로 전체의 1/40에 약간 못 미친다. 출판이외의 분야에서는 3,671명의 도서관 및 학교 관계자를 포함해 전문가 또는 법인에 소속된 인원이 15,515명이고, 나머지 18,178명은 일반 독자로 조사되

었다. 결과적으로 동경국제도서전은 일반 독자의 두 배에 달하는 다수의 출판 및 인접분야의 관계자, 전문가가 참가한 행사로서 그 순수성이 유지된 도서전으로 평가할만하다. 다만 외국 출판관계자의 참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제도서전으로서의 세계적 위상이 높다고는 할 수 없겠다.

2006년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북엑스포아메리카는 출판 산업관계자 31,971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한 수치는 뉴욕에서 열린 전년도의 행사에 비하면 10%정도 감소한 것이지만, 그 전년도인 2004년의 시카고 행사에 비하면 20%정도 증가한 것이었다. 개최지역의 인구나 교통여건이 국제도서전의 참가 인원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만 2006년 행사에 참가한 바이어 수 7,500명은 뉴욕에서의 행사에 비하면 5%정도 낮은 수준이어서 직무상 국제도서전에 참가하는 바이어의 경우 지리적 조건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주최 측이 집계한 등록인원에 관한 자료는 단순하지만 국제도서전의 성과를 출판인의 행사로만 인식하고 기술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2006년의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은 5일간의 행사기간동안 총 286,621명의 등록된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해 비슷한 수치로 등록인원을 날짜별로 구분하면, 출판관계자만이 입장하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3일간 참가한 인원이 일반인도 입장할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참가한 인원보다 3만 명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지만, 출판관계자의 관심과 참여가 그와 같지 않았다면 해당 국

제도서전이 오늘날과 같은 명성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서 일반인의 역할이란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하면 출판인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구경꾼과 같다.

모두 101개국에서 7,225개사가 참가한 2005년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의 통계자료를 참고하면, 7천개가 넘는 참가사 가운데 44%가 자국의 업체이고 56%가 외국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국제성을 확인할 수 있다. 참가사의 국가별 순위는 독일이 가장 많고, 영국,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순이다.

2005년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 참가사의 업종별 분포는 출판사가 60%로 으뜸이고, 저작권, 유통, 인쇄 관련 기구가 20%, 포장,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컨설팅, 사진, 고서, 도서관 등이 나머지 2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참가사가 국제도서전에 참가한 목적은 기존의 계약을 갱신하고, 권리를 매매하며, 이미지를 개선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동업자를 찾고,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원별로 2005년의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의 성과를 살펴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은 7대 3정도이다. 전체의 6할 정도가 사업차 국제도서전을 찾았으며, 그 목적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의 새로운 소식을 보고, 정보를 수집 교환하고, 계약을 갱신하고, 전문지식을 배양하는 것이었다. 참가자의 연령별 분포는 사업차 방문한 사람의 경우에 40세 전후가 가장 많고, 다음은 30세 전후, 50세 전후, 25세 이하, 60세 이상의 순서이며, 그렇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20세 전후가 가장 많고, 다음

은 30세 전후, 40세 전후, 18세 이하, 50세 전후, 60세 이상의 순서였다. 이러한 일반인은 시장의 뉴스거리를 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지식을 쌓고, 유명인사가 참여하는 이벤트를 보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도서전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rankfurter Buchmesse 2005).

단순한 전통과 규모의 차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홍보하며, 그 성과를 조사 분석하여 공식화하는 양식의 차이에서 타 국제도서전과 차별화된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4. 독서진흥을 위한 서울 국제도서전의 문제

4.1 출판의 관점

2005년의 서울국제도서전은 1만 5천 평방미터의 공간에서 528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국내 도서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행사 및 활발한 독자 서비스의 전개를 이유로 주최 측은 단행본, 종합출판사는 태평양홍, 아동 및 교육도서출판사는 인도양홍에 나누어 배치했다. 특별히 20개국에서 57개 출판사가 참가한 국제도서 전시 공간에는 국제 문화교류 증진과 저작권 및 출판물 교역 활성화를 이유로 저작권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 통역요원을 상주시켰다.

위와 같은 전시 공간의 구분, 즉 단행본과 아동도서, 국내외 출판사 간 차별화 전략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문제는 국외 출판사의 참가가 국제도서전의 생색내기엔 불과하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빈약하고, 국내 출판사의

참가 또한 저작권 판매보다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홍보의 장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2006년의 서울국제도서전은 태평양홀에 단행본관, 아동 및 교육도서관, 국제관, 인도양홀에 일반도서, 서울국제북아트전을 배치했다. 하지만 아동도서 편중과 국제성 빈약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성과는 2005년의 경우, 6일간의 행사기간동안 25만 명 정도가 방문하고, 저작권 수출은 1,872건 상담에 378건 계약으로 집계되었다(서울국제도서전 2007). 방문한 인원의 규모만으로는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 필적할만하다. 주최 측은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증가한 때문에 전년에 비해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고, 특히 연휴기간 중에는 입장시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입구에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하였다고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성과를 분석하면서 잡은 제목은 세 가지였다. 첫째, 관람객의 증가, 둘째, 책을 둘러싼 다양한 볼거리의 향연, 셋째, 저작권 수출에 물꼬를 튼 도서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과연 사실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가이다. 굳이 국제도서전의 의미를 무료의 방문객 수에서 찾는 것도 문제이지만, 2004년의 342건에 비해 겨우 36건 증가한 저작권계약 실적을 가지고 저작권 수출에 물꼬를 튼 도서전이라 평가한 것은 지나치다. 발전의 모색은 현실의 정확한 인식을 기초로 해야 한다. 질이 아닌 양의 가치판단, 과장된 해석은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비록 무료의 방문객이라고 하더라도 25만 명이라는 인원은 서울국제도서전의 미래에 대해

밝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주최 측은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도서전으로 치장하려 노력하는 것은 헛될 뿐이다. 2006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주최 측은 전년의 관심을 반영하여 북아트 전시 공간 및 관련 세미나, 행사를 대폭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수단과 목적은 다르다. 책을 둘러싼 다양한 볼거리의 향연이라는 제목은 해당 국제도서전이 수단에 치우쳤음을 말할 뿐이다. 도서 전시 및 저작권 계약에 관한 프로그램이 아닌 여러 가지 부대행사는 단순히 도서전을 꾸미는 역할, 흥미의 유발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예술을 수단으로 한 출판활동이 아니고, 출판을 수단으로 한 예술활동이 국제도서전의 공간을 반복해서 점유하는 일은 출판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제도서전은 국내 출판 및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굳이 국민 독서력의 증대, 독서진흥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현실적인 당면 과제, 국제성의 결여, 아동도서의 편중 현상에 대해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업적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이고, 생산적이라기보다는 소모적인 성격의 부수적인 책무를 자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최 측은 먼저 국제도서전의 상업적 순수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문화정책당국은 국제도서전을 독서진흥의 정책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제도서전은 철저히 출판산업진흥의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독서와 출판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해서 출판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독서진흥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 저작의 수준이 높거나, 출판시장의 규모가 크거나, 출판교역의 허브로 경쟁력이 있다면 국

내외의 많은 출판사, 출판인이 서울국제도서전을 찾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가 없다면 순수한 국내 도서전시회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주제, 유형의 출판물에 한정하여 존재 가치가 분명한 국제도서전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행사는 홍보성 이벤트에 불과하다.

4.2 독서의 관점

정부는 일찍이 출판진흥시책의 하나로 출판문화의 국제교류를 증진하였으며, 국제도서전의 참가를 그 수단으로 인식하였다(문화부 1993). 출판 및 인쇄진흥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국제교류와 수출시장 확대, 그리고 건전 독서풍토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명분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의 지원을 주요한 정책 추진사업에 포함하였다(문화관광부 2002).

국제도서전은 주최하고 후원하는 기관이 아무리 좋은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이다. 국제적인 인지도, 우수한 저작물의 보유, 축적된 문화적 역량이라는 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유수의 국제도서전과 비교 평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는 않다. 결과만으로 비판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서울국제도서전 조직위원회는 문화콘텐츠시대의 새로운 출판문화 창출, 출판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 독서력 증대를 통한 국가지식기반 확충, 출판 및 독서정보교류의 활성화, 출판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표방하였다. 상업적 사업에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문제를 결부시킨 것이다. 독서진흥의

사명을 자임할 필요는 없지만, 구태여 독서진흥을 명분으로 삼고자 한다면 응당 그 전략과 노력이 국제도서전의 여러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한다. 당시 서울국제도서전은 우리작가 친필 원고전을 비롯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 홍보관, 안데르센 탄생 200주년 기념 특별전, 대한민국 신인 북디자인 공모전, 저자와 사진 한 장, 직지홍보 특별 전시, 출판 산학 협동관, 독서단체 초청 세미나, 인문학 카페 등을 주요 행사로 마련했으며, 부대 행사로 참가사가 준비하는 저자 간담회와 출판관련 소규모 강연회를 이벤트홀에서 매일 수차례 개최하였고, 출판산학협동 포럼, 해외 유명 북아티스트 초청 세미나, 푸름이닷컴 유아교육 전국세미나, 한국도서 저작권 해외 마케팅 방안 등 세미나도 관련기관의 주최 하에 그랜드볼룸, 컨퍼런스룸 등에서 열었다.

그리고 2006년의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작가의 방, 삼국유사 특별전, Books on Korea, 독자와 함께 하는 좋은 출판사 도서전, 대한민국 신인 북디자인 공모전, 북한서적 전시 및 북한 영상물 상영 등 주요 행사를 갖고, 이벤트홀에서 신간발표회, 도서퀴즈대회, Book Reading, 일본 출판사의 사례, 호주 작가의 그림그리기 워크샵, 한국니체학회 심포지움, 책 속의 주인 공에게 편지쓰기, 저자와 사진 한 장, 우리 동네 서점 신문발행콘테스트, 역사학카페 등 부대행사를 열었다. 역사학카페는 인문학카페 후속 행사로 카페 분위기에서 역사서를 만나게 한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 또는 국제도서전 자체가 독서진흥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 가이다. 단발적이고 국지적인 행사

에서 한정된, 잠재적 독자의 관심과 흥미는 충분히 독서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대에 그쳐야 한다. 일과성의 행사가 독서의 촉매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성장 동력이 될 수는 없다. 국제도서전은 일반인, 잠재적인 독자에게 단지 눈으로 즐기는 이벤트에 불과하다. 독서진흥은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기반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당국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는 새로운 독서문화진흥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것은 첫째,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둘째, 독서장애인, 소외지역, 소외 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셋째, 독서활동 권장, 보호,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 넷째, 독서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이다. 과연 유통 진흥을 위한 국제도서전의 기능이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할 바는 무엇인가. 굳이 출판물의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독서문화진흥에의 영향력을 따져본다면 국내 글자의 대형서점이 국제도서전에 뒤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서점의 역할에 독서진흥의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서점이 독서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닌 것처럼 국제도서전 또한 그러하다.

독서와 국제도서전이 서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일이 불가분, 또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되도록 사업이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느 쪽에도 이롭지 않다. 인위적으로 부작용을 낳는 것보다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보다 현명하다. 독서환경에서 출

판물의 상업적인 유통 구조, 특히 국가 간 저작권의 교역은 주요한 변수가 못된다. 소외된 독자, 잠재적인 독자를 위한 독서 자료의 유통구조에서 큰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도서관이다. 성공적인 국제도서전은 독서진흥, 독서생활화, 독서 붐 조성의 단어들로 덧칠할 필요가 없다. 정책당국이 서울국제도서전을 독서관련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요한 독서진흥 사업이고, 범국민 독서진흥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한 독서와 도서관, 출판부문에서 정책상의 혼선은 계속될 것이다.

5. 결 언

독서진흥에 관한 법률과 정책, 주요 국제도서전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서진흥을 표방한 서울국제도서전의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하에서 독서진흥의 책무를 지닌 국립중앙도서관은 구체적인 독서환경 개선이나 독서진흥 관련 사업, 행사를 도서관이 아닌 출판계 주도로 이루어지던 사안들로 채워 넣었다. 그 대부분이 해당 법률이 아닌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근거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새로운 독서문화진흥법 하에서 정부의 독서진흥정책은 더욱 더 출판의 관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국제도서전은 출판 및 유통 관련 협회가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어 주최하고, 전시 공간의 임대와 입장 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경국제도서전, 북엑스포아메리카,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은 그러한 요건을 갖춘

반면, 서울국제도서전은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서울국제도서전 주최 측이 독서진흥의 임무를 자임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외국의 주요 국제도서전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출판 관련 산업 및 인접분야의 최신 기술 및 제품, 인원의 비중이 높고, 특히 저작권 상담을 위한 회의 공간이 전시 공간보다 넓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도서전이 출판인의 행사이고, 비즈니스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홍보성 이벤트의 틀에 갇힌 서울국제도서전이 지향해야 할 바이다.

넷째, 서울국제도서전의 주최 측은 사업성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참가자의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을 판단해야 한다. 2006년의 동경국제도서전에서 출판 및 인접분야의 참가 인원은 일반인의 두 배정도인데, 그러한 경향은 북엑스포아메리카나 프랑크푸르트국제도서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인의 높은 관심과 참여와는 별개로 국제도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

는 상업적 순수성을 잃지 않고, 출판인이 소비자가 되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존재가치가 있는 국제도서전으로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주제, 또는 유형의 출판물을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도서전은 출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독서진흥정책의 중심에는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독서진흥정책의 요체이다. 자국의 일반인을 상대로 출판물의 판매를 촉진하려는 행사에 독서진흥을 관련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사회 여러 부문의 많은 활동이 독서문화진흥에 도움이 된다. 그런 활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국제도서전이 독서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도서전의 목적이 독서진흥이 될 수는 없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의 유치가 국민체력증진을 위한 것이고, 국제의료기기전시회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곤란하다. 잘못된 인식이 이어져 전통이 되고, 기이한 문화형태로 발전한다면 그 영광은 당연히 출판계의 몫이겠지만, 그 책임은 도서관계와 문화정책당국에 남는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2005. 『국립중앙도서관 2010』.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김상호. 2004. 도서관서평의 구조와 표현. 『서지학연구』, 29: 345-360.
 김상호. 2005. 한국의 도서심의제도에 관한 고찰. 『서지학연구』, 32: 161-178.

대한출판문화협회. 2006. 『2006 서울국제도서전 결과보고서』. [online]. [cited 2007. 5. 10]. <http://sibf.or.kr/2007/kor/sub_05_02.asp>
 문화관광부. 2002. 『2002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online]. [cited 2007. 5. 10].

- 〈<http://www.mct.go.kr/>〉
- 문화관광부. 2005. 『2005년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관광부. 2006. 『2005 문화정책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부. 1993. 『출판정책자료집 1992』. 서울: 문화부.
- 박정욱. 2002. 『출판저작권 수출 진흥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잡지전공.
- 서명희. 2002. 『독일과 한국의 국제박람회 비교』.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 서울국제도서전. 2007. [online]. [cited 2007. 5. 10].
〈<http://sibf.or.kr/>〉
- 안준모. 2005. 『국제도서전을 통한 저작권 수출 증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 이종국 외. 2002. 『세계 주요국의 도서관 및 독서 현황 조사 자료집』. 서울: 한국출판연구소.
- [도서관법 2006. 12. 20. 법률 제8069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2003. 5. 29. 법률 제6906호]
[독서문화진흥법 2006. 12. 28. 법률 제8100호]
[출판 및 인쇄진흥법 2006. 4. 28. 법률 제7941호]
- Bologna Children's Book Fair. 2007. "Visitors." [online]. [cited 2007. 5. 10].
〈<http://www.bookfair.bolognafiere.it/page.asp?m=52&l=2&a=&ma=3&c=20&p=52visitors>〉
- BookExpo America. 2007. [online]. [cited 2007. 5. 10].
〈<http://www.bookexpoamerica.com>〉
- Frankfurter Buchmesse. 2005. "Facts & Figures." [online]. [cited 2007. 5. 10].
〈http://frankfurt-book-fair.com/en/presse_pr/zahlen_fakten/print.htm〉
- Frankfurter Buchmesse. 2007. [online]. [cited 2007. 5. 10].
〈<http://www.frankfurt-book-fair.com>〉
- Graham, W. Gordon. 1969. "Book Fair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ited by Allen Kent and Harold Lancour, Vol.2, New York: Marcel Dekker.
-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 2007. [online]. [cited 2007. 5. 10].
〈<http://www.bookfair.jp>〉